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잠시 쉴 곳을 찾기도 한다. 이는 제주인들도 마찬가지다. 잿빛 건물과 자동차,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와 메시지, 경쟁과 성과를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러나 제주에 닿자마자 이들은 도시에서의 습관으로 제주를 소비한다. 유명 카페와 맛집을 찾고, 사진을 찍고, 새로 생겼다는 SNS상의 유명 장소를 찾아간다. 제주로 왔지만 정작 제주의 것에 머물지 않는다.

‘돌낭예술정원’에서 잠시 쉬

현대인들의 삶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을 잊고 산다. 물질과 속도를 기준으로 질주하는 도시의 삶은 편리하지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넓혀 버렸다. 혹 이런 경각심으로 제주를 찾는지도 모른다. 제주에는 도시가 잃어버린 바람과 바다, 오희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자체로 의미가 되는 풍경들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잖아 소비하려 한다.

제주 관광의 방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 많은 시설과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제주에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개발이 아니라 덜 만들고도 더 머물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소비

하는 관광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관광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올레길이 처음 보여주었던 가치도 바로 이런 방향이었다. 길을 걷고 돌담을 만나며 마을, 바다를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제주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길 주변이 온통 소비의 공간으로 변하면서 몸은 걸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

‘돌낭예술정원’은 제주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또 하나의 볼거리나 예술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예술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소비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자연과 예술이 서로 스며드는 공간에서의 쉬는 몸만 쉬는 것이 아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

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연과 관계를 맺는 관광, 소비보다 창조와 성찰을 얻게 되는 관광이야말로 미래 제주의 방향이지 않을까.

바다는 바다인 채로, 오희는 오희인 채로, 숲은 숲의 모습 그대로 항존(恒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가공하면 편리함은 얻으리 몰라도 우리가 꿈꾸는 제주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어쩌면 제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경험 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라면 얼마나 좋은가. ‘돌낭예술정원’에서의 작은 쉬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건넨다. 제주를 찾아 끝내 만나야 할 것은 제주 자체가 아니라, 제주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기에.

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단축… 홍보 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가 변경돼 고용을 해야 하는 농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연 2회 신청이 가능했던 수요조사가 1회로 단축되면서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가 연 1회로 축소됐다. 또 결혼이민자를 연계한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도 기존 4촌 이내 친척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촌 이내로 축소됐다. 다만 과거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1회 통합 조정은 법무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는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신청된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 수요조사가 축소된 것을 모르는 농가와 농업법인에서는 자칫 신청기간을 실기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신에 모자란 인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올해만도 310농가에 1073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모자란 일손을 돕고 있다. 행정 당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기회를 실기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주산’ 내걸고 수입산 파는 행위 철폐해야

제주에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등 22개 업소가 적발됐다. 관공지 밀집 상권에서 이뤄진 단속 결과여서 더욱 씩씩하다. 특히 일부의 일탈이긴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제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체질을 한 것 이어서다.

적발 사례를 보면 1t이 넘는 포 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만든 돔베고기와 고기국수를 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있었다. 또 중국산 배추김치와 콩을 사용하면 서 소비자가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돼지고기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다. 제주 돼지고기 가 사랑받는 데에는 오랜 기간 쌓

아온 청정 제주산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제주는 이미 음식과 관련해 흥역을 치른 적이 있다. ‘비계 삼겹살’ 논란과 옹두암 해안에서의 수산물 바가지요금 논란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제주는 한 동안 ‘비싸고 만기 어려운 관광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더욱이 최근 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논란으로 국민적 시선이 어느 때보다 곱지않은 않다.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기본은 ‘다시 찾고 싶은 곳’에서 출발한다. 수입산 재료로 만든 음식에 제주산이라는 거짓 이름을 붙여 파는 행위는 제주관광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얼마간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린마당

올바른 셀프 주유취급소 이용으로 안전 지키자



강 정 준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교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도로 곳곳에서 ‘셀프 주유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렴한 유류비와 대면하지 않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찾고 있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진 만큼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여야 할 때다.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연성 유증기를 내뿜는다. 작은 불꽃 하나로도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기

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주유 전 차량 엔진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또 주유기 손잡이를 잠기 전 정전기 방지 패드를 먼저 몸에 쌓인 정전기를 방출해야 한다.

주유 중 흡연과 화기 취급도 절대 금물이다. 담배뿐만 아니라 라이터 등 화기류의 사용은 치명적인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를 별도로 담을 때는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이 아닌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은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마 관覧했지’ 하는 안일함을 버리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나와 가족,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셀프 주유 이용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뉴스-in

‘야(夜)밤버스’ 인기에 연장 운행

1차 운행 전 회차 만석 기록

○…제주도관광협회가 여름철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제주시 티투어 야간코스 ‘야(夜)밤버스’ 1차 운행기간 모든 회차에서 만석을 기록하면서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오픈탑 2층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야(夜)밤버스는 이호목마등대 노출에서부터 석양이 아름다운 도두봉, 먹거리와 특산품이 넘치는 동문재시장 야시장, 산지천 분수대, 역사문화유산인 관덕정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

관광협회 관계자는 “버스에서 야(夜)밤 DJ가 코스 해설에서부터 제주어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즉석 추억사진 인화 서비스 등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면서 탑승객들의 반응도 좋아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동홍동 “민원 7일 내 답변”

○…서귀포시 동홍동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복·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을 위해 9월말까지 ‘동홍 소통 투어’를 추진하며 눈길.

동홍 소통 투어는 통 단위 현장, 경로당, 생활민원 발생지 등을 매주 1회 수요일마다 방문해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안과 대안을 검토해 건의자에게 설명하고 면담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오은정 동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주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와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책임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백금기기자

부 고

제주영락교회 故 박지운 목사(향년 44세)께서 2026년 9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였기에 제주영락교회장을 알려드립니다

▶조문 일정 및 장소
조문가능일 : 2026년 9월 2일(수)
제주영락교회 로이홀

▶발인예식 일시
2026년 9월 3일(목) 오전 6:10

▶발인예식 장소
제주영락교회 대예배실

▶장지
양지공원→제주영락동산

▶유가족
배우자 이 경 미 사 모
아 들 박 세 준
딸 박 세 은

※ 연락처 :
이경미 사모 010-9055-8145
고형삼 상례부장 010-3693-3690

장례위원장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 이광재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2차)

당 회사는 2026년 8월 26일 주주총원서면결 의로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8월 26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주식회사 성혁하우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동로 40, 2층(상양일동)
청산인 강 일 순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건중(1962. 07. 11.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5번길 53 나동 101호(대정2차반석타운)

상기자는 2026년 4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547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정촌11길 54, 107동 601호(노형동, 정든마을)
2026. 9. 2.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진영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신월2리 웅암동굴계 거문로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할당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